

공동체 소식



연중 제26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번 주간의 기념일/축일

- 10월 1일 :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
-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시: 10월 6일 (토), 10:00, 묵주기도와 함께.

주일학교 및 유아 자리 안내

- 성당 뒤 5줄은 주일학교 학생과 유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소 소란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유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당 평일미사 안내

-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30 AM
- 평일 미사는 모두 본당 Stone Chapel 에서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2018년 한가위 미사 단체 사진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286	211	164	283
차 주	64	210	157	271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지안 요한
차 주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 한나 김정훈 로베르토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김대연 요셉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 주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차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차 주	이내익 베드로, 박태주 로마노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23	55 명		
		-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선택된 새로운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느님의 선물을 가득히 받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 사랑의 위대한 업적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림 묵상

“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려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마태 21,29-30)
하루동안 수없이 내뱉은 말, 셀 수 없는 행동들을 주님의 말씀 위에 얹어 놓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용서를 청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정미연 소화대

제 1 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11,25-29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화 답 송: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 2 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5,1-6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38-43.45.47-48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생명의 말씀

끊어 버림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미사 집전, 환자 방문, 고해성사 등을 통해 신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을 만나며 놀란 것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 담배를 피웠다는 것, 춤을 추고 음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죄라 여기고 고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를 남용함으로써 수많은 유혹과 죄로 빠지기 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맥주 한 캔 마신 것, 요란한 음악을 들은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인식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폭력을 일으키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다면, 그 부분을 꼭 고해성사때 고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문득 오늘 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손, 발, 눈 그 자체가 당연히 죄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단호히 잘라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워낙 소박한 삶의 문화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마약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했고, 또한 술을 마시고 본인의 통제력을 잃은 채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술 자체를 죄라고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술 한 잔, 담배 한 대, 디스코 음악 그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폭력과 방종, 무분별한 생활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마을 신자들처럼 애초에 그 자체를 끊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데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손을 사용하는 것,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데만 사용된다면, 우리의 눈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무관심으로 외면한다면, 그것은 분명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그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일반 세상의 삶과는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달란트가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러한 도구들에 얽매어 살아간다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 그 도구 자체를 끊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끊어 버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의 도구를 용기 있게 끊어버릴 수 있는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

“ ‘우리’ 가 권력이 될 때” 中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배타성’이라는 금기가 은밀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철벽을 치고 그 어떤 이질적 존재도 침입하지 못하게 감시함으로써 또 다른 소외와 변방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와 진정으로 민주적인 연대는 ‘우리’ 안에 낯설거나 열등한 것,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례의 본문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자유마저 통제하고 제한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독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유혹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늘 있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폐쇄적 자의식을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자신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제한하려는 폭력을 성폭할 정도의 성실성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선민의식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런 생각일랑 하지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마태 3,9)고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 안에서도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은 결코 인간의 질투나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은 이들을 시기하여 집단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제거하려는 파괴적 근본주의와 편협한 우월의식은 복음일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 김혜윤 수녀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총원장) -

말씀의 이삭

초월 지수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능력 지표로 흔히 지능 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를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서 꼭 학습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이를 보완할 감성 지수(E.Q. Emotional Quotient)라는 개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좌절하지 않는 태도,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학업 성취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 밖에도 심리학자와 저술가들은 각종 지수를 고안해냅니다. 한때 책의 제목 뒤에 Q자를 붙이는 게 출판계의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가를 따져보는 ‘부모 지수’, 유명인들의 성공 요인을 탐구하는 ‘성공 지수’에 이어 ‘카리스마 지수’라는 말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의 단계를 측정하는 ‘믿음 지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수치화한 모든 잣대와 전혀 다른, 믿음의 척도로 인간을 평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도 분명히 단계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궁리를 해 보아도, 믿음 지수의 기준을 세우기는 너무나 어렵군요. 이를테면 ‘순수한 사랑’, ‘진실한 마음’, ‘순종’, 또는 ‘희생’의 단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믿음의 주체가 오로지 인간이라면 어떤 분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입

함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담론은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시대라지만, 세상에는 인간의 지력으로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망망대해라면, 현재 인간이 가진 지식은 그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잘했거나 큰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저 은총의 빛에 이끌려 믿음의 길 위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모든 능력을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지수를 넘어 ‘초월 지수(T.Q. Transcendental Quotient)’라는 개념만이 떠오르는군요. 물론 알량한 제 지력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4차원의 시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한 무한 차원의 존재. 우주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 사랑이신 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온 세상을 품은 무한대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믿음의 세계에 초대받았음에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 성기영 아가빠 | 작가, 작곡가 -



교리상식

사제들도 고해성사를 보나요?

사제들도 사람인데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제들도 사제들끼리 고해성사를 주고받습니다. 고해소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대리자인 사제와 함께, 한 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살았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생기 있게 했고, 무엇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해소에 오는 모든 이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